

해그림자

붉게 물들어 가는 석양이 하루의 끝을 말해 주고 있었다. 박 씨는 긴 한숨과 함께 하얀 담배 연기로 석양을 가린다. 땀으로 젖은 옷이 그의 힘든 하루를 말해 준다.

“제기랄~!”

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너무도 비참한 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. 돌이키고 싶은 1년 전…….

그날도 박 주무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을 나섰다.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귀여운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했다. 사무실 책상에는 변함없이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서류 더미들이 넘쳐나고,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.

“박 주무관, 킴온~”

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때 부르는 과장 특유의 말투가 귀에 들려온다.

“네 과장님. 무슨 일이십니까?”

“검사과에서 납품 검사 담당하던 최 주무관이 육아휴직을 가는데, 대체 인력 오기 전에 자네가 대신 업무 좀 해 줘야겠어. 자네 일은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부터 검사과로 가 보게.”

“예? 아니 검사과 사람들도 많은데, 왜 우리 부서에서 그걸 합니까?”

“그러게 말일세! 만만한 게 우리 부서야 쟁쟁~! 사실 이번 진급 심사 때 검사과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거든. 내가 자네 신경 좀 써 달라고 했어. 자네도 올해는 진급해야지~. 가서 눈도장 열심히 찍으라구 보내는 거야.”

10년째 7급에서 승진을 못 하고 있는 박 주무관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. 과장이 신경 써 주겠다는데, 싫다는 소리도 못 하고 결국 책상 정리를 하고 검사과로 갈 수밖에 없었다. 8급이었을 때 담당했던 업무라 큰 어려움은 없었다.

납품 업체가 물품과 납품 조서를 가지고 오면 조서와 현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, 샘플로 몇 개 개봉해서 물건 상태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, 어찌 보면 단순 업무였다. 지금 하는 일보다 여유 있고 나름 한가한 자리라 내

심 속으로 기뻐했다.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멀리 부산에서 온 업체가 대기하고 있었다. 업체 직원이 박 주무관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다.

“어? 담당자가 바뀌었나요? 최 주무관님이 나오셨었는데…….”

“예. 육아휴직을 가서 당분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. 박민석입니다.”

“아, 그러시구나. 잘 부탁드립니다. 박 주무관님~.”

업체 직원이 환한 미소를 띠며 악수를 청했다. 멋쩍게 악수를 하고 바로 물품 검사를 시작했다. 그런데 조서에 있는 물품 중에 수량이 맞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.

“어? 이거 조서하고 수량이 안 맞네요? 5개 부족한데요?”

“네? 그럴 리가요? 어제 적재하면서 다 확인하고 온 건데…….”

업체 직원은 당황하면서 다시 한번 물건을 확인하더니 회사로 전화를 한다.

그러더니 물건을 납품 기한에 맞춰 제작하지 못해서 5개가 오늘 밤에야 제작이 끝난다고 한다. 내일 아침에 가져오겠다며 오늘 납품조서 완결 처리를 해 달라고 애원한다. 단가가 비싼 거라 하루만 지나도 지체 배상금이 크다고 얼마 남지도 않는 건데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한다.

“박 주무관님, 저희가 여기 하루 이틀 납품 오는 것도 아닌데, 사정 좀 봐주세요. 내일 아침 일찍 갖고 오겠습니다.”

박 주무관은 잠시 망설여졌다. 경험상 이렇게 몇 년씩 거래한 업체들은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이었다. 마지못해 나머지 물건을 내일 아침 일찍 가져오라고 하고는 검사를 마쳤다.

“아이고, 이거 첫날부터 신세져서 어찌나요! 너무 고맙습니다. 박 주무관님~. 저기 이거 제 성의의 표시니까 받아 주세요. 비싼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받아도 김영란법에 안 걸립니다. 수고하세요~.”

직원은 환한 미소와 함께 미리 준비해 온 듯 차에서 박카스 한 상자를 꺼냈다. 박 주무관은 또다시 망설였다. 전에도 업체 직원들한테 음료수 한 병 정도는 받아먹었지만, 김영란법이 실시된 이후로는 웬지 작은 것도 받기가 꺼림칙했다. 더군다나 처음부터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업체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걸 뻔히 알기에 더욱 망설여졌다.

“설마 박카스 한 상자 가지고 무슨 일 나겠어? 어차피 검사과 새로 왔으니까 음료수 한 병씩이라도 돌려야 할 텐데, 이걸로 하면 되겠네…….”

박 주무관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박카스 상자를 받아들였다.

“그럼 부족 수량은 내일 꼭 가지고 오세요.”

“그럼요.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”

검사를 마친 박 주무관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박카스 상자를 뜯었다.

“어? 이게 뭐야?”

분명 뜯지 않은 상자인데 어떻게 넣었는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. 봉투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. 박 주무관은 당장 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.

“김 대리님? 박카스 상자에 봉투 뭐니까? 누구 잘리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?”

“아, 그거요? 제가 고마워서 성의 표시를 한 겁니다. 탈 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구요. 저하고 박 주무관님하고만 아는 비밀입니다.”

“내일 돌려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!”

“박 주무관님, 이제 그 일 계속하실 거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죠. 사실 최 주무관님도 제가 섭섭지 않게 해 드렸거든요.”

“아무튼 내일 봅시다.”

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다. 그러고 보니 최 주무관이 평소에 동료 들끼리 어울리면 술값도 잘 내고, 명품도 자주 샀다.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.

처갓집에서 사준 거라고 하지만, 주변에서 공공연히 납품업자들에게 뇌물 받는다는 소리를 자기도 몇 번 들었던 같다. 그런데 업체의 말을 들어 보니 사실이었던 것이었다. 최 주무관에게 전화를 했다.

“최 주무관님, 박민석입니다.”

“아~ 박 주무관님, 저희 과로 오셨다면서요? 제 업무 담당하신다고 들었어요.”

“네……. 그래서 좀 물어볼게 있는데요. 나성실업 김 대리 아시죠?”

“아, 그 친구요? 예의 바르고 일 잘하죠. 왜요? 무슨 문제 있나요?”

“오늘 납품을 왔는데, 돈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…….”

“아, 그거요?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. 박 주무관님, 그 자리가 제법 짹짹해요.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한 밀천 잡고 가세요.”

“예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!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!”

“에이~ 누군 뭐 처음부터 그랬나요?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같이 뻘한 월급에 따로 돈 벌 수도 없고, 딸린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?”

“.....”

박 주무관은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. 뻔한 월급에 아파트 대출금 내고, 아이 키우며 32평 아파트에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. 아내에게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 준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.

“박 주무관님, 메뚜기도 한철입니다. 생각 잘하세요. 저도 3년 일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 문제 된 적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냥 성의로 받아 주시고 다른 업체보다 신경 써서 편의 좀 봐 주시면 됩니다. 아셨죠? 끊을게요.”

대답할 틈도 안 주고 전화를 끊었다. 다시 전화할 용기가 나질 않는다. 심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. 딸아이가 반갑게 맞아 준다. 하지만 아내는 근심 어린 얼굴로 박 주무관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다.

“여보, 내일 아버님 퇴원하시는데,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 아무래도 요양원으로 가서야 할 것 같아. 여기저기 알아봤는데, 시설 괜찮고 간병인 좋은 요양원은 한 달에 120만 원이라네.”

말끝을 흐리는 아내에게 박 주무관은 아무 말도 해 줄 수가 없었다. 지금 이 형편에 매달 120만 원씩 추가로 지출이 발생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.

“치매 등급 판정 잘 받으면 반값이면 되는데. 자기는 의료보험공단 쪽에 아는 사람 없어?”

“내일 출근해서 알아볼게.....”

박 주무관은 잠이 오질 않았다. 낮에 돈 봉투도 그렇고, 아버지 요양원 문제도 그렇고 심란하고 답답했다.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.

부스스한 몰골로 출근을 하자 김 대리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인사한다.

“아, 김 대리님. 일찍 오셨네요? 물건은 가져오셨나요?”

“아, 그게 말이죠..... 어젯밤에 장비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만..... 오늘 오전에야 장비 업체에서 수리하러 온답니다. 죄송해서 어찌죠? 고치면 바로 제작 들어가서 오늘 오후에는 꼭 갖고 올 겁니다. 오후까지만 기다려 주세요.”

“네? 아니 그렇게 되면 입고 처리를 못 하게 되잖아요. 오늘 입고시켜야 되는데, 물건이 모자라면 어찌라는 겁니까?”

“정말 죄송합니다!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.”

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기계가 고장 나서 그런 걸 어찌겠습니까?”

결국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물건이 도착했다.

김 대리는 연신 굶신거리면서 미안하다고 했다.

“박 주무관님,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겁니다.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……. 늦었는데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.”

“아닙니다. 김 대리님도 오늘 고생하셨는데 어서 가 보세요.”

“아니죠. 사람이 도리가 있지. 이렇게 실례를 했는데, 밥 한 끼 정도는 대 접해야죠.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 드시고 가세요.”

김 대리가 박 주무관의 팔을 잡아끌었다. 밥 한 끼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.

“아주머니, 여기 삼겹살 3인분하고 소주 한 병요.”

“그냥 밥이나 먹지……. 고기까지 먹을 건 없는데…….”

“아이고,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~.”

고기가 노릇하게 구워지고 술이 몇 잔 오가자 취기가 돌기 시작했다.

“김 대리님, 혹시 최 주무관하고도 이랬나요?”

“아~ 최 주무관님요? 사람 참 좋은 분이셨죠.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거죠. 세상일이 원리 원칙대로만 돌아가나요?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”

“그럼 혹시……. 혹시 의료보험공단 쪽에 아는 사람 있어요? 사실 아버지가 치매라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, 등급 판정을 잘 받아야 요양비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. 그냥 요양하시면 한 달에 백만 원도 넘고……. 아파트 대출금도 갚으려면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…….”

박 주무관은 말을 잇지 못했다. 자신의 무능함을 타인에게 말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다.

“아이고, 그런 일이라면 진작 말씀하시지~ 저희가 의료보험공단 쪽에도 납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. 제가 잘 아는 분 있는데, 한번 알아보게요. 너무 걱정 마세요. 힘드신 일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니까요~.”

“그래요?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어찌나. 잘 좀 부탁해요. 잘되면 내 은혜 잊지 않을게요!”

그로부터 삼일 후 김 대리로부터 연락이 왔다.

“주무관님,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. 걱정 마시구요. 내일이나 모레 정도 공

단에서 조사하러 방문하실 겁니다. 미리 다 협조된 거니까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요. 아셨죠?”

“정말요? 정말 감사합니다! 제가 언제 식사 대접 한번 근사하게 할게요!”

“아닙니다. 서로 돕고 사는 건데요 뭐.”

그리고 이틀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. 박 주무관의 아버지는 치매 등급을 잘 받아서 요양원에 거의 반값으로 들어가게 되었다.

아내는 박 주무관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워했고, 박 주무관도 이제는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했다. 며칠 후 김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다.

“박 주무관님, 잘 지내셨어요?”

“아이고~ 김 대리! 덕분에 아버지 요양원 잘 들어가셨어요. 시간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지 그래요?”

“그렇잖아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?”

“그럼요. 그럼 일곱 시에 지난번 식당에서 봅시다.”

약속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갔다. 김 대리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. 술 몇 잔이 오가자 김 대리가 입을 열었다.

“박 주무관님 이번엔 저 좀 도와주세요.”

“무슨 일 있으세요?”

“사실은 이번에 다른 기관에 납품 들어가는 게 있는데, 저희 쪽 사정이 있어서 기일 내로 물건을 못 만들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박 주무관님께 납품했던 물건인데 3,000개 납품한 걸로 아는데요. 100개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? 그쪽 기관 납품 일자에 도저히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.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105개로 갖다 드릴게요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”

“그래요……. 일단 내일 출근해서 알아보게요…….”

차마 안 된다는 말을 김 대리 앞에서 못 하고 말끝을 흐렸다.

다음 날 출근해서 김 대리가 부탁한 품목을 확인해 보니 재고가 2,900개 남아 있었다. 한꺼번에 많이 불출되는 품목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다. 모든 부서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남아서 야근을 했다.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물건을 가져온 배낭에 집어넣었다. 김 대리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서둘러 퇴근을 했다. 정문 경비의 인사도 받는 등 마는 등 도망치듯 퇴근을 하는 박 주무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.

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긴장감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. 약속한 장소에 김 대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.

“김 대리님, 일주일입니다! 꼭 갖고 오셔야 해요!”

“걱정 마세요. 꼭 갖다 드릴게요! 고맙습니다. 박 주무관님.”

김 대리는 물건을 받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. 불안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약속한 일주일 지났다.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다. 불안한 마음에 결국 전화를 했다. 그런데 핸드폰이 꺼져 있다. 회사로 전화를 했다. 여직원이 전화를 받는다.

“여보세요? 거기 나성실업이죠? 혹시 김 대리님 계신가요?”

“네……. 그런데 지금 전화 받으실 수가 없어요…….”

“무슨 일 있나요?”

“실례지만, 어디시죠?”

“여기 관공서예요. 납품 때문에 문의할 게 있어서요.”

“사실은요……. 지금 납품 비리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 나와서 김 대리님 조사받고 계세요. 저희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나중에 연락하세요…….”

여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. 납품 비리라니……. 이게 웬 날벼락인가? 그럼 오늘 주기로 한 물건은 어찌란 말인가?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사무실로 들어온 박 주무관을 과장이 부른다.

“박 주무관 혹시 우리 나성실업에서 납품 들어온 거 있나?”

“예? 예……. 왜 그러십니까?”

“그놈들 이번에 납품 비리로 조사받는다고 연락 왔어. 검찰에서 우리에게 납품 들어온 것도 있어서 조사 나올 것 같아. 얼마 전에 거기서 납품한 물품 있지? 그거 불출 정지시키고 잘 보관하고 있어. 관련 서류도 준비해 놓고.”

“네…….”

박 주무관은 하늘이 노래졌다.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한테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. 혹시나 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너무도 순식간에 한 번에 일어난 것이다. 그날 오후 검찰이 들이닥쳐서 서류를 가져가고, 창고에 보관된 물품들을 조사했다. 그리고 재고가 100개 부족한 걸 발견하고 박 주무관을 취조하기 시작했다. 처음엔 아니라고 우겼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김 대리와 대질 심문까지 들어가자 결국 시인을 했다.

3개월 후 박 주무관은 초범이고, 동료들의 탄원서로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지만, 공식 생활을 그만둬야 했다.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칠고 험한 세상이었다.

경력도 자격도 전과자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. 결국 한번도 해 본 적 없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힘든 막노동을 해야만 했다.

하루가 저물 무렵 땀이 뒤범벅이 되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. 옆에 앉아 있던 같이 일당 잡부로 돌아다니는 김 씨가 뭔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박 주무관에게 건넨다.

“어이 박씨. 이걸 한 병 마셔. 그래도 이거 마시면 피로가 좀 풀려.”

“아네요. 형님 드세요……. 형님도 힘드신데…….”

“난 집에 가서 소주 한 병 나발 불고 자면 돼. 자네 먹어.”

손에 쥐여 준 박카스 한 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. 그때 김 대리 그 자식한테 박카스만 안 받았어도, 아니 받은 걸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만 했어도…….

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. 그 일 이후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힘들게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.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아빠가 올 때까지 집에서 혼자 저녁도 못 먹고 기다린다. 아파트 대출금도 갚지 못해서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. 행복하고 단란했던 순간들이 꿈결 같기만 하다. 그때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것이다.

어둑어둑 해 지는 저녁 무렵 박 주무관은 힘없이 터벅터벅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. 그의 주머니에는 아내에게 줄 박카스 한 병이 들어 있었다. 그날따라 지는 석양이 마냥 슬퍼만 보였다. 이제 누구도 그를 박 주무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. 박 씨에게 석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태양의 그림자로만 보였다.

그는 해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?